

[그때 그시절]

불타는 도시, 무용 건축재 (下)

이재경 사우

본격 취재를 위해 LA 다운타운으로 나왔다. 당장에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 1보를 촬영해야 한다. T프러덕션의 리무진에 동승하여 코리아타운으로 향한다. 곳곳에 총을 든 히스패닉계와 흑인들이 걸어 다니고 상점들은 불에 타고 있다. "여기까지 운전은 해주지만, 촬영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본인들이 해결하십시오!" 길거리에 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현지인의 말에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문제는 시간이 없었다. 차에서 내려 촬영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할 수 있다. 거기에 출장의 필수 요건인 스텐드업까지 해야 한다. 우선 방문진 기자에게 딱 한 줄만 맡겨서 외우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서서히 불타고 있는 마트 근처에 차량을 접근시키고 외친 한마디. "내려!" 방 기자의 위치를 잡아주고 이미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를 카메라에 연결하고 큐~ 스텐드업을 마치고 불타는 마트를 스케치하고

다시 차에 탑승하기까지 걸린 시간 1분 정도. "갑시다." 새벽 3시, 위성 송출을 위해서 우리 팀은 현지 방송사에 있었다. 끝내고 숙소로 도착한 시간 새벽 5시. 간단한 샤워 후 한 시간여 눈 붙이고 아침 9시에 다시 로스앤젤리스 시내를 향한다. 차 안에는 현지 라디오를 틀어 놓고 하늘을 본다. 헬기가 날아다니는 장소가 곧 사건현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정을 열흘 정도 이어가다 보니 수면시간이 총 10시간도 안 되었다. 30년 전의 이야기이다. 귀국 후 윤세영 회장의 배려로 폭설 수 있는 휴가와 급일봉(?)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그때의 감사의 마음이 지금도 저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머나먼 해외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같이 취재 보도했던 김벽수, 방문진, 정영희, 우리팀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생했다 말씀드리며 현장에 있을 때 가슴 뛰던 그 경험이 그리워진다. (끝)



감사합니다(발전기금)

 강화식 (30만원)	 김혁 (30만원)	 김동운 (30만원)	 故 김형근 (30만원)	 서인준 (30만원)
 손기종 (30만원)	 윤인섭 (50만원)	 이동수 (30만원)	 이영준 (50만원)	 이태희 (30만원)
 임광기 (30만원)	 최영달 (30만원)	 이형근 (30만원)		

환영합니다(신입사우)

 정성근 (보도본부)	 변희석 (ERP팀)	 심상대 (콘텐츠파트너십)	 송요훈 (A&T영상제작2)	 우홍성 (A&T영상제작1)
 홍지만 (보도국영커)	 조용미 (A&T아트1)	 황재호 (경영관리ERP)		

공 지

1. 안식년부터 사우회 가입이 가능하니 입회하고자 하는 사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사우회 혜택] 애경사 관리 및 지원금 지급 / 동호회 활동 지원 / 정기 건강검진 지원 / 퇴직후 10년차까지 창사미 지급 / 사우회 연중행사 참여 / 사우회보 구독
3. 사우 회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호부터 지면 색을 바꿨습니다. 또 지난 호 사보에 대한 사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호와 본문 활자 크기를 알맞게 조정했습니다. 기탄 없는 의견 주시면 계속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우 동 정

 최영범 사우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홍지만 사우 대통령비서실 정부비서관
 유지현 사우 2022 시그니스 세계 총회 대변인 겸 집행 위원	 김한중 사우 가톨릭관동대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전임 교수
 김도식 사우 Redhill Korea(글로벌 홍보대행사)부사장	 신일현 사우 YOU&IT(컴퓨터수리) 대표

◆ 애도합니다

강화식 모친상 (04/02)
이태희 빙모상 (04/04)
이영준 모친상 (04/08)
서인준 모친상 (04/11)
손기종 빙부상 (04/19)
김혁 모친상 (05/03)
김진나 시부상 (05/24)
이형근 모친상 (06/03)
정영희 빙부상 (06/09)

◆ 축하합니다

<생신>
홍수(홍수, 90세)
윤세영(6월20일)
산수(산수, 80세)
박세호(6월25일)

<결혼>
김동운 아들 (04/24)
최영달 장녀 (04/24)
임광기 장남 (05/05)
이동수 장녀 (05/14)
박수정 장남 (06/05)
문왕곤 장남 (06/11)

곽재석 아들 (04/16)
이영준 장녀 (04/16)

◆ 회비내신분

연회비 (4월~5월)
김광섭, 천영일

종신회비
정성근, 변희석, 김강석, 송요훈,
심상대, 우홍성, 홍지만, 조용미,
황재호

◆ 회비안내

연 회 비 : 30,000원
종신회비: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 비 납 부 1006-901-277104
경 조 사 납 부 1005-101-255925
협 찬 회 비 1005-001-954097

(종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봄·봄> 화합과 우정을 다진 3년만의 소풍



사우회 봄철 야외회가 지난 5월 19일 성황리에 열렸다. 코로나 19 여파로 3년만에 열린 이번 야외회는 5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가했다. 여의도와 일산에서 회원들을 싣고 각각 출발한 버스는 잠실운동장역과 가평휴게소를 경유해 1차 목적지인 춘천시 김유정 문학촌에 도착했다. 김유정 문학촌은 <봄·봄>, <동백꽃> 등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 단편 소설가 김유정 문학의 배경이 된 마을에 2002년 춘천시가 설립

했다. 전국의 단일 문학관으로는 최대방문객 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 관광지다. 강원도 매스컴을 대표하는 G1방송 대표 허인구 회원이 방송사 직원과 문학촌 입구에 미리 도착해 회원들을 맞이했다. 또 강원도 특산물 품취를 선물로 제공해 회원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한 김유정 문학촌 총장 이순원 소설가와 관계자들도 직접 나와 회원들을 안내하고 자세한 해설까지 곁들여 이번 야외회 내용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었다. 춘천 대표음식 닭갈비와 메밀 막국수로 점심식사를 한 뒤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2차 목적지 제이드가든으로 향했다. 유럽식 정원으로 꾸며진 식물원 겸 수목원 제이드가든은 방송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회원들은 황매화 등 화려한 봄꽃과 분수가 솟아 나오는 예쁘고 독특한 조형물, 개울가 등지에서 기념 사진도 찍고 이야기꽃도 피우며 화합과 우정을 나눴다. 정관식회원은 참가회원들에게 직

접 구워 온 호두과자를 나눠줘 야외회 분위기를 한층 훈훈하게 했다. 회원들은 이번 봄철 나들이에서 오랜만에 선배의 돈독한 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벽수회장과 송호석사무총장 등 집행부 노고에 감사했다. 김벽수회장은 "이번 봄철 야외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것은 모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배려 덕분이었다" 고 고마운 마음을 밝혔다. (야외회 관련 상세한 내용과 사진 등은 사우회 홈페이지 <http://sbssau.15440835.com> 참조)

윤세영 사우회 명예회장 골프 책 출간

<LUNA X, 우주로 쏘아 올린 골프공>

윤세영 SBS사우회 명예회장(태영그룹/SBS 미디어그룹 창업회장)의 골프 사랑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한국 골프 대중화, 산업화를 선

도적으로 이끌어온 윤회장의 이 책에는 골프 꿈나무 육성과 'SBS 코리아 투어' 창설 등을 통해 박세리, 최경주, 양용은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윤회장의 삶과 업적을 기록으로 담았다.

사우회 사무실 확대 이전

사우회 사무실이 등촌동 공개홀 3층에서 2층으로 6월 17일 이전한다. 기존 사무실이 15평으로 협소하고 공간 활용성이 떨어졌는데 옮겨 갈 새 사무실은 두배가 넘는 33.6평인데다 구조도 양호해 사무공간, 회의실은 물론 각종 동호회 활동 장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 이전 할 사무실 조감도





골프 동호회(회장 배성례, 총무 김찬모, 부총무 문계창)가 4월과 5월 더 크로스비 골프클럽에서 월례회를 열고 선후배 회원들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4월 월례회부터 부활된 시상식에서 타이틀리스트(유민상, 77타), 롱기스트(박영수, 245미터), 니어리스트(김찬모, 5미터)의 수상자가 나왔다.

현재 6팀으로 진행되는 골프 동호회는 월례회 참여 공지를 띄우자

마자 마감돼 운영진이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진은 사우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팀을 구성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1회 이상 참석자
배성례, 이은범, 김찬모, 김덕규, 손석기, 김벽수, 박동주, 송호석, 정영철, 임근배, 김두상, 윤경섭, 박영수, 송연갑, 김인주, 문계창, 유민상, 이강호, 강태식, 이원식, 임형두, 최경수, 고장석, 김근수



음악 감상회(회장 강동하)가 코로나로 잠정 중단했던 모임을 4월 22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재개했다.

오랜만에 모인 회원 15명은 와인을 마시며 봄과 어울리는 음악과 영상을 감상했다. 이 자리에는 송선무 사수가 진도 홍주를, 이형원 사수가 음료를 제공해 분위기를 돋우었



당구 동호회(회장 김영식, 총무 윤영준)가 4월과 5월 서초동 교대 당구장에서 월례 모임을 갖고 회원간 화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다. 김벽수 회장이 참석해 격려금과 함께 식사를 제공해 큰 박수를 받았다.

1회 이상 참석자
강동하, 곽영범, 김벽수, 김용정, 김인홍, 김춘경, 민대식, 박건삼, 송선무, 송호석, 윤종의, 이관형, 이형원, 최준식, 현일범,

가졌다.
1회 이상 참석자
김영식, 김익성, 박영호, 박찬근, 윤영준, 이기석

신입회원 초청 간담회 개최

신입회원 초청 간담회가 지난 4월 21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덕규, 심상대, 이태희, 이형원, 염석근, 임순원 회원 등 올해 정년퇴임을 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호회 등 사우회 각종 모임과 활동이 소개되고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벽수 회장은 사우회에 대한 신입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회원자격: SBS → SBS미디어그룹소속사 총회구성: 일반 회원 → 대의원

2022년도 제2차 확대이사회와 3차운영위원회가 5월 26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려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SBS로 한정돼있는 제6조 정회원자격을 SBS미디어그룹 소속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임직원으로 확대했다. 또 제17조 총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회원으로 돼 있는 것을 30명

이내의 대의원으로 변경했다. 김벽수 회장은 "SBS 여러 부문이 분사함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확대할 상황이 생겼고, 사단법인 관리체계가 까다로워져서 총회 구성의 변경이 불가피했다. 대의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일반 회원들의 의견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제한시간 60분! 런닝맨 멤버가 되어 미션을 완수하자!

런닝맨 체험관

런닝맨 체험관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모티브로한 다양한 미션을 60분 동안 체험하는 실내 어트랙션입니다.

위치 부산 서면, 갈문 세인트존스 호텔, 제주 영문(연내 오픈 예정)

반갑습니다!



윤세영 SBS 사우회 명예회장이 최근 골프관련 서적 <루나 X>를 출간하고 구순을 맞이했다. 사우회보는 이를 계기로 윤세영 명예회장과 5월 27일 오전 여의도 태영 사옥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취재했다.

- 먼저 90세 생신 축하 드립니다. 여전히 젊은이 못지 않게 정정해 보이시는데 요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을 물으셨는데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나이와 지는 해는 어쩔 수 없지요, 이사람 며칠 뒤면 구순입니다. 거의 종착역에 다다른 순간이죠. 하지만 이사람 노추를 배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여생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한시간 이상 전신 운동을 합니다. 주 3회 정도 골프라운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면 윤희장님께 골프를 빼 놓을 수 없는데, 최근 <루나 X>라는 골프관련 책을 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화자되고 있는데요, 골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육군참모총장실에서 중위로 군제대 후 국회 이동녕 의원실 보좌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동창실업(무역회사), 봉명광산(흑연탄광) 사주로서 훌륭한 기업가이신 동시에 정치가이셨습니다.

또한 대단한 골프 애호가이셨고요. 모시던 이동녕 의원께서 골프채를 주시며 권유하셔서 67년 경에 골프에 입문하게 되었으니 어느덧 반세기 넘은 구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운이었습니다. 또, 처음 접했을 때부터 골프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초창기엔 골프 칠 흥편이 아니었음에도 기회가 되면 골프장을 찾으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골프를 치지않는 사우들께는 미안하지만 골프는 워낙 재미있고, 승부가 있는 게임이며 동시에 레이크리에이션이자 건강증진의 장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골프를 유망한 스포츠임과 동시에 매력적인 산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니 이 사람에게는 골프가 인생이고 인생이 골프인 셈이지요. - 대한민국에서 윤세영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업이면 사업, 방송이면 방송 모두 성공시키셨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하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비교적 많은 도전들을 했었고 또 우리 SBS사우회 분들을 포함해 많은 각계 각층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법 큰 성공들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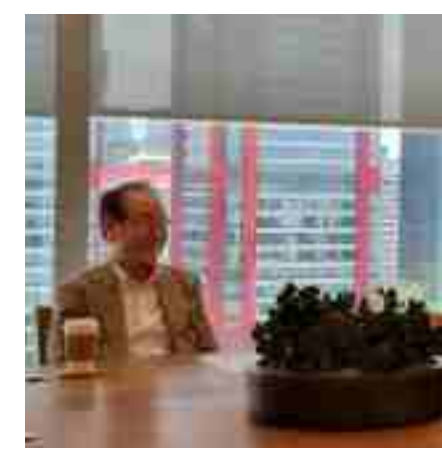
이 사람이 인복이 있는 거지요. 개인적으로는 '원칙', '정직', '신의', '지성'을 삶의 모토로 삼고 아직도 매사에 유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집념'으로 '실천'해온 발자취들이 하나씩

모여 오늘의 이 결실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방송, 레저 등 분야는 다양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핵심가치들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뜻하는 바를 꾸준히 견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고마운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2막의 도전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서전을 읽어보니 회장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사법고시를 치지 않으시고 사회 첫 발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시작하셨어요, 혹시 정치에 뜻이 있으셨는지요?

사법고시를 치지 못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지요. 대학교 3,4학년 학업과정을 장교로 군복무 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63년 4월 결혼을 하고, 9월 군 재대를 했으니 후구 지책으로 취직을 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지요.

마침 연이 달아서 이동녕 의원의 보좌관(서기관 상당)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산업전선에 투신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가 아니고 사업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잘 맞는 방법이었으니 딱히 정치에 뜻을 둘 이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십년간 회사를 일구다 보니 여러 경로로 정치 입문 제의는 있었지만요.



하지만요, 재작년 미수(米壽) 때 주위에 전했던 이 사람의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아래 다짐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여생을 여전히 꿈꾸고 있습니다.

- 윤세영의 꿈과 이상(구순을 맞아 나는 아름답고 행복한 여생을 꿈꾼다.)**
- ① 나는 심신이 건강한 자존을 꿈꾼다. 꾸준한 운동과 함께 마음이 녹슬지 않도록 사색하며 산다.
 - ② 나는 매사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자신감을 갖는다.
 - ③ 나는 귀한 가족과 많은 친구와 친지가 있다. 그들을 믿음으로 사랑한다.
 - ④ 나는 산업보국의 꿈을 꾀다.
 - ⑤ 나는 노추(老醜)를 배격한다. 무슨 일이나 참견하기, 같은 말 되풀이하기, 험뜯기, 불평하기를 지양한다.
 - ⑥ 나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 SBS 사우회가 최근 회원이 크게 늘고 규모도 제법 커지고 있습니다. 새 집행부도 이에 맞춰 여러가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회장님께서 사우들에게 조언이나 당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사우회를 이렇게 건재하게 이끌어준 역대 회장 이하 집행부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사람도 사우회보를 통해 옛 역전의 용사들의 동정을 보며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모두들 백세 시대를 맞아 합리적인 제2의 인생설계를 하시고, 그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SBS 사우회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